

빛가람도시 북측 진입도로 7년만에 뚫는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 빛가람도시 북측 진입도로



공사비 400억, LH공사·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 등 3사가 분담

길이 890m 6차선 내년 완공…금천교차로 일대 병목현상 완화 기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도시)로 진입하는 북측도로 건설사업이 확정돼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논란이 됐던 빛가람도시 북측도로 공사비 400억원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3사가 분담하기로 했

다고 16일 밝혔다.

이 도로는 빛가람도시와 국도 1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길이 890m, 폭 30.5m, 6차선으로 건설된다.

애초 이 도로는 정부 지원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1혁신도시 1기 반시설 지원' 원칙에 따라 추가 국비 지원이 불가능해지면서 나주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됐다.

혁신도시 건설을 시작해 7년만에 이뤄진 결실이다.

지난해 나주시의 교통영향평가 결과 국도 1호선 구간에는 1일 평균 13만여대의 통행량이 발생하는 등 교통대란 해소를 위해 북측 진입도로 개설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혁신도시 북측도로 건설구간에 포함된 500여m 길이의 우수(雨水) 방류시설도 마무리돼 산포면 매성리 일대 농경지 침수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북측 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1개뿐인 혁신도시 진입로인 금천교차로 일대의 병목현상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공사에 들어가 내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영암 독거노인 공간

'달뜨는 집' 9호 건립

저소득층과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공동체 공간 본보기를 제시한 영암 '달뜨는 집' 제9호가 건립됐다.

달뜨는 집 9호는 금정면 아천리 일대 647㎡에 건축 면적 242㎡ 규모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영세 가정, 다문화 가정, 마을과 떨어진 외딴 위험주택에 홀로 살던 노인 등 4가구가 16일 입주했다.

군은 앞으로도 학산, 덕진 면에 제10호·11호 달뜨는 집을 건립하고자 부지를 찾고 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최근 '문불여(文不如) 무불여(武不如) 장성에서의 1박2일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서원 체험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고흥한우 등급판정 '1++' 전국 최고 품질

축산물판정소 전체 출하량 28% 해당

고흥군은 2013년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 최고등급인 1++ 등급 출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16일 밝혔다.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밝힌 고흥지역 한우의 1++ 등급 출현율은 지난해 전체 출하량의 28%로 전년도 17%에서 11%포인트나 크게 상승했다.

전남지역 시군의 1++ 등급 평균 출현율은 17.3%로 고흥지역 1++ 등급 출현율은 전남도내 시군 중 가

에서 생산된 청정 조사료를 자급자족한 점 등도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고흥군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30억원 예산을 확보해 관내 생산 조사료를 체계적으로 생산·유통할 수 있는 조사료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등 앞으로도 한우 품질 향상에 노력할 방침이다.

고흥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등급 판정 결과를 계기로 고흥한우를 유자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축산농가 경영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기자 gjj@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선비문화 체험캠프' 청소년 인성교육 '쑥쑥'

장성군이 조선시대 선비문화 체험을 위해 마련한 문화캠프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16일 장성군 청렴문화센터에 따르면 '문불여(文不如) 무불여(武不如) 장성에서의 1박2일 캠프'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에 선정됐다.

고흥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등급 판정 결과를 계기로 고흥한우를 유자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축산농가 경영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군의 문화캠프는 문

화재청으로부터 국비와 함께 문화재 청 후원 명칭 부여 및 흥보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문불여 무불여 캠프는 필암서원 (사적 242호)과 봉암서원(전남 기념물 54호) 등 문화재에 숨겨진 다양한 의미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선조들의 지혜와 애절 등을 배우는 다양한 교육과 청백리 체험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문화재도 지키고 일자리도 만들고

도, 올해 17억 들여 문화재 등 512곳 돌봄사업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40% 이상 뽑아

중부로 나눠 12팀 55명의 기동보수반이 활동에 나선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40% 이상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전남도가 올해 문화재 돌봄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사업비 17억원을 들여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 모두 512곳에 대한 문화재 돌봄사업을 펼펴고 했다.

지난해는 화순 쌍봉사 철갑선사탑 (국보 제57호) 등 289곳에서 문화재 주변 제조작업, 창호교체, 벽도배 등 모두 4145건의 경미한 수리를 했다.

이 사업은 산간오지 등 관리가 취약한 '나흘로 문화재'를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잡초 제거, 제설작업, 배수로 정비, 주변 청소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한다. 창호나 벽체, 마루, 기와 등이 경미하게 훼손된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복구하는 등 말 그대로 가까이서 문화재 지킴이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사단법인 문화재예방관리센터가 사업을 주관하고 도내를 동서부와

다. 지난해에는 43명에게 50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지원액을 1억 원으로 늘렸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매일 1~15일까지 구례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 매달 받을 계획이다.

개인당 지원 한도는 연간 200만원으로 2년 동안 최대 400만원이다.

/구례=이성구 lsg@

■ 세 얼굴

"지방선거·보조금 사업 비리 엄단"

김현수 광주지검장



"겸허한 자세와 서비스정신으로 지역주민을 섬기면서 겸손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일 부임한 김현수(49) 광주지검장은 지방선거 엄정 관리, 농어업 보조금 사업 철저한 진단 등을 강조했다.

그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자들에게 선거운동은 최대한 자율을 보장하되 반칙과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건전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어업 관련 난민상으로 대수롭지 않게 민들이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각종 농어업 보조금 사업에 도입 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인 김 지검장은 고려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이후 의정부지검, 대검찰청 연구관, 부산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취미는 고전음악 감상이며, 가족은 부인과 1남1녀가 있다.

/정홍=김용호기자·중부취재본부장



착한 음식을 만드는 정성 채널A의 마음입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은 불량 먹거리를 고발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는 '착한식당'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력으로 원칙을 지키는 식당 주인의 마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채널A의 마음입니다.

꿈을 담는 캔버스 채널A

채널A〈먹거리X파일〉이영돈 PD와 착한식당〈빵드립빠〉의 이호영 대표